

2010 안양 시민사회단체 지방선거 대응 연대 조직 결성을 위한 제안 - 안양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

1) 경과

지방자치가 실행된 이후 안양지역에서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여러 노력을 진행해 왔다. 초기에는 주로 공명선거와 선거참여 운동을 진행하였고, 이후 정책중심의 선거를 위해 후보자 초청 토론회, 정책 제안 운동을 진행하였다. 2006년 선거에서는 [좋은 정책 안양시민연대]를 결성하여 정책제안과 후보자의 ‘메니페스토’ 운동을 진행하였다.

직적의 시장 보궐선거에서는 공정한 경쟁과 시민의견 수렴을 다짐하는 시장 후보자 간의 협약을 끌어내기도 하였다.

이러 활동과 함께 기초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여성정치연대 등 시민사회 세력의 의회진출을 위한 노력도 진행되었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이런 조건에서 안양시민협에서는 논의를 통해 이번 2010 지방선거에 기존 방식의 대응을 넘어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누고 이를 안양지역 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모으고, 2010 안양지방선거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의 결성을 제안하기로 하였다.

2) 전국과 경기지역 지방선거 대응 논의 진행 과정

언론악법 날치기, 4대강 사업 강행 처리 등 국민의 여론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일정을 고집하고 용산참사, 쌍용자동차 문제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도 하지 못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심판의 목소리와 2010 지방선거 대응에 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서울에서는 내년 서울 시장 선거를 통해 적극적인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처음에는 좋은 서울시장 만들기에서 시작한 선거 대응 모임이 이제는 수도권, 전국적으로 연대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서울 시장 만들기에서 시작한 진보단체들의 연대 모임인 2010연대, 시민사회단체 원로와 활동가들 중심으로 구성된 희망과 대안 이외에 30여개 단체가 모여 서울 시장 출마를 추진하는 민주넷 등 서울 중심의 2010 지방선거 대응을 위한 연대 기

구가 4-5개에 이르고 있다.

경기지역도 원탁회의에서 명칭을 변경하고 출범한 희망광장, 교육감선거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경기교육희망연대, 군포빨뿌리 생활정치네트워크, 고양시 무지개연대 등 기초지역의 선거 대응 조직 결성 등 다양한 2010 지방선거 대응을 위한 논의와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이번 2010 지방선거는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교육감,교육위원을 동시 선출하는 선거로 8개를 기표하는 복잡한 선거로 진행될 것이다.

특히 경기 지역에서는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제안으로 경기 진보연대, 경기 교육희망연대 등이 모여 [경기도의 한나라당 일당독주 철폐와 김문수지사 심판], [좋은 후보 발굴과 지원활동], [좋은정책 제안] 활동을 중심으로 연대기구를 구성하기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 한나라당 일당 독주를 막아내기 위한 도민 1천인 선언을 시작으로 10만인 선언을 조직하자는 사업 계획이 논의되고 있음)

3) 경기도 지방자치와 안양지방자치의 특징

경기도는 교육감선거에서의 좋은 경험과 사례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일당 독주의 지방자치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선출직 도의원 전원, 31개 기초자치단체의 시장, 군수 중 29명, 경기도 지사 모두 한나라당이 당선되었다.) 이는 전국최대 인구의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지방자치가 시민과 도민의 참여는 고사하고, 최소한의 견제도 없이 일방 통행으로 진행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민주, 진보세력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경기도에는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시민정치참여와 풀뿌리 지방자치를 위한 많은 노력이 진행되었고, 현재도 준비되고 있다. 어려운 조건에서 지방자치의 발전과 시민정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온 흐름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의 지지와 지원이 요청되고 있다.

생활권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지방자치의 성격 상 경기도정은 그 규모와 중요성,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민과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다. 하지만 이번 무상급식 예산의 도의회 전액삭감 사태에서도 보여지듯이 경기도정은 감시와 견제가 절실한 실정이다.

안양시의 경우도 민선자치단체장은 보궐까지 포함하여 6차례의 선거에서 모두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또한 시의회 의원 구성에서도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는 시정에 다양한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안양시정이 [균형과 견제]를 통해 발전하는 지방자치의 실현을 어렵게 하였다.

4) 2010 안양 희망과 대안(가칭) 결성 제안

경기도와 안양의 특수성과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2010 지방선거에 대응하는 안양지역 대응조직 결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안양지역의 민주,진보 세력이 힘을 합쳐 참가하는 가칭 [2010 안양 희망과 대안] 결성을 제안한다.

가칭 [2010 안양 희망과 대안]은 2010 안양 지방선거에서 [균형과 견제]가 가능한 지방자치를 실현해 내고, 안양 지역의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실현할 좋은 후보를 발굴, 선정 지원하여 시민이 지방자치의 주인이 되는 길을 열어야 할 것이다.

특히 [2010 안양 희망과 대안]은 경기도의 지방선거 연대기구와 함께 경기도의 한나라당 일당독주를 막아내는 활동을 광범위한 시민 유권자 참여 운동과 함께 진행해야 할 것이다.

(가칭) 2010 안양 희망과 대안 조직구성과 사업 (안)

1. 목적

2010 안양 지방선거에서 안양시의 민주, 진보세력의 결집을 통해 [균형과 견제]가 실현되는 지방자치를 목표로 민생, 민주, 환경, 여성 중심의 좋은 정책과 좋은 후보 발굴, 지원 등을 통해 시민의 지방자치참여를 확대한다.

2. 구성

목적에 동의하는 시민, 사회, 진보단체와 종교계, 교수, 지역 원로 등 개별 인사들의 참가를 통해 구성한다. 단 당직을 가진 정당 관련자와 출마 예정자는 참가를 배제한다. 참가단체 대표와 실무책임자, 개별인사 등을 포함 100인 내외로 구성한다.

3. 주요 사업

1) [균형과 견제]를 통한 안양과 경기도의 지방자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 (1) 경기도정과 경기도의회의 일방독주 체계를 막아낸다.
 - 경기도 단위 연대조직과 함께 연대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민선4기 김문수 경기도지사 정책 및 공약 평가 실시)
(경기도를 망친 10대 정책” 도민 평가)
 - 경기도 일당 독주 철폐 10만인 선언 운동 참가 및 조직

(2) 안양시정과 시의회 운영 평가를 통해 지방자치 시민참여 방안을 제안한다.

2) 안양시 좋은 정책 제안 운동

- (1) 민생, 민주, 복지, 환경, 여성, 평화 중심의 좋은 정책을 제안한다.
 - 안양시 희망 정책단 구성 및 활동
 - “희망과 대안을 위한 안양시 10대 정책” 선정
 - 제 정당과 정책제안과 정책 연합 형성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 (2) 좋은 정책 실현 유권자 참여 운동을 진행한다.
 - “희망과 대안을 위한 안양시 10대 정책” 선정 과정에 시민 참여 조직
 - “희망과 대안을 위한 안양시 10대 정책” 지지 시민 선언 조직

(3)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과의 좋은 정책 협약 진행

- (4) 좋은 정책 실현을 위한 후보자 초청 토론회 진행
 - 시장, 시의원 후보자들의 후보 초청 토론회를 지역 언론과 함께 진행한다.

3) 좋은 후보 발굴, 지원을 통해 지방자치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한다.

- (1) 안양시 좋은 후보 선정 100인 위원회 구성
 - (연대기구의 전체회의가 선정 위원회 역할을 맡는다 ?)
 - (후보자의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제안된 좋은 정책에 대한 협약 후 좋은 후보 선정 과정을 진행)

(2) 기초 의원을 중심으로 좋은 후보를 발굴하고 지원한다.

4. 운영 방안

1) 재정

- 참여단체와 개인의 회비로 운영한다.
(단체, 개인 모두 2만원 이상의 회비 납부)

2) 공동대표

- 참여단체의 대표를 공동대표로 한다.

2) 운영위원회와 공동 운영위원장을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한다.

- 부문과 지역, 개별인사를 대표하는 20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일상적인 의사결정을 진행한다.
- 부문과 지역, 개별인사를 대표하는 5인 이내의 운영위원장이 조직을 총괄한다.

3) 전원회의, 사업별 모임 운영

- 창립 등 주요한 결정은 구성원 전체가 참가하는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결정한다.
- 구성원들이 역할을 나눠 사업별 모임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다.

4) 사무국

- 한시적 운영을 전제로 공동 사무국을 구성한다. (2-3인)

5. 추진 일정

2010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하여 2월 초순 발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1) 안양지역 제 시민, 사회단체, 개인에게 제안서 발송 및 준비위원회 진행

1월 11일 - 1월 18일 (1차 참가단체, 개인 확정)

1월 19일 1차 준비위원회 개최

1월 20일 - 1월 27일 (2차 참가단체, 개인 확정)

1월 28일 1차 준비위원회 개최

2) 연대기구 결성식 및 기자회견

참가단체, 개인 전원회의로 진행

희망정책단 구성, 사업별 모임 확정

주요사업 일정 확정

(좋은 정책 마련을 위한 시민토론회, 좋은 후보 선정을 위한 일정 확정 등)

별첨 : (가칭) 2010 경기 희망과 대안 조직 구성과 운영(안)

총회

참가단체 대표와 개인참가자 전원 회의

운영위원회

부문과 개인 참가를 고려하여 20이내로 구성

참가단체 대표 또는 실무책임자로 구성

(개인참가자의 경우 종교,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구성)

공동운영위원장

5인 이내의 공동운영위원장 - 조직을 대표하고 실무를 책임 짐

참가단체 대표 또는 실무책임자로 구성

부문과 활동 분야를 고려하여 구성 (정책, 토론회, 좋은 후보 선정 등)

사무국

참가단체의 실무인원 파견을 통해 실무팀 구성

인건비는 지급하지 않으며 최소한의 활동경비를 지출한다.

재정

참가 회비를 재정으로 한다. 부족분은 별도 회비로 충당한다.

재정은 사업비로 사용한다.

인건비는 지급하지 않으며 최소한의 활동경비를 지출한다.